

2006년 희망을 쏘는, 신성건설

첨단기술과 자연의 조화로 고객이 미소 짓는 아파트 건설

경인지역 최초로 우수 친환경건축물 인증, 주거문화대상, 인천시 조경대상을 수상한 인천의 랜드마크 삼산 신성미소지움, 천혜의 자연 전망과 충남 최초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어우러진 계룡신도시 신성미소지움 등 첨단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컨버전스 아파트로 미래형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신성건설, 2006년 주택시장의 혁신을 예고한다.



1 신성건설이 시공한 건설회관
2 주거문화대상, 인천시 조경대상을 수상한 인천의 랜드마크 삼산 신성미소지움



대한민국 건설업 면허 4호, 건설 한국의 역사를 주도한 대표 기업

신성건설은 1952년 설립하여 오직 건설업에만 전념한 대한민국 건설업 면허 제4호로 54년간 국내는 물론 중동,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대한민국 대표 건설기업이다.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이 신성건설은 해외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여 70~80년대 중동 지역의 대형 군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많은 건축 및 토목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였다. 90년대 말에 이미 중국에 진출하여 북경의 최고급 주택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베이징 그린빌라를 분양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로 및 관계수로, 시멘트 플랜트 등 대형 토목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세계

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 왔다.

국내 건설시장에서도 신성건설은 국내 건설산업의 산실인 건설회관을 비롯하여 국내시장에 아파트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시공하였으며, 국내시장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1960년대에 서울 홍은동의 랜드마크 유진상가를 건설하는 등 주택 및 개발 사업을 선도하였으며,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8호선, 분당선 및 부산 지하철 1·2호선 등 토목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세계 교량 건설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개념의 환경친화적 차세대 교량 건설 기술인 SCP 합성거더(Steel Confined



Pre-stressed Concrete Girder)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천안 광덕-보산원간 도로 중 승전교와 지장교, 천안 구성동 구곡교, 강원도 영월의 옥동교 등 국내 교량 시장의 개념을 새롭게 함은 물론 해외에서도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순수 우리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턴키, 민자사업 경쟁력 강화

신성건설의 정부 발주 공사 수행 경험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1980년대 국내 연구 기술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된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에서 원자력연구소, 기계연구원, 통신연구소 등

을 비롯하여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주요 연구시설의 대부분을 신성건설에서 시공하였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 및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칠천연육교, 옹포대교 등 전국 각지의 주요 도로, 지하철, 교량 등의 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사업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행정 도시 건설과 연계되어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발주 공사에서 입찰 경쟁력 우위를 내세운 약진이 기대된다.

특히 신성건설은 대한주택공사 발주 공사에 있어 5차례 최우수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턴키 발주 공사를 포함하여 수십여 건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대한주택



3 인천 삼산 신성 미소지움 중앙공원 4 생태공원

공사의 홈네트워크시스템 적용 지능형 주택 시범사업인 인천 논현주공아파트 턴키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판교 등 향후 발주 예정인 대형 턴키 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계획하는 등 주공아파트 턴키 발주 공사에 1군 업체 중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국내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BTL 방식의 민자 사업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분야 시장개척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주택 시장에 우리말 브랜드 시대 개척

대한민국 주택건설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신성건설은 1960년대부터 현대적 개념의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여 국내 주택건설산업을 선도하였으며, 2000년도 이후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주택건설 시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순우리말 '미소짓다'와 웅장한 대형공간을 뜻하는 영문형 어미 '~UM'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

'미소지움(MISOZIUM)'을 당시 '○○빌' 등의 국적이 모호한 외래어 브랜드가 난립하던 시절 주택 시장에 출시하여 우리말 브랜드 시대를 여는 효시가 되었다.

미소지움은 한국브랜드협회에서 주관한 '브랜드 파워 대상 - 종합 우수상'을 비롯한 각종 브랜드 관련 수상을 석권하였으며, 2005년에는 인천삼산 신성미소지움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인지역 최초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였을 뿐 아니라, '주거문화대상-웰빙아파트 대상' 및 '인천광역시 조경대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주관한 '국가 환경경영 대상' 수상 심사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내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5 주택건설의 날 유공자 포상에서 신성건설의 윤문기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미소지움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미소지움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

신성 미소지움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미소지움 전자책 도서관(MISOZIUM e-BOOK Library)은 신성건설의 기술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신개념의 차세대 서비스이다.

신성 미소지움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미소지움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는 어린이 멀티동화, 국내외 유명 도서, 전문서적, 수험서 등 약 10만여 권을 도서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사설문고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규모면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무료 전자매체 사설문고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미소지움 전자책 도서관은 입주 이전에도 입주 예정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책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유지 관리 및 도서 추가 업데이트 등을 건설사가 법정 하자 담보 책임기간과 무관하게 평생 제공하는 신개념의 서비스로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성 미소지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2006년부터 전자책도서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영어·경영학·사회과학 등 6~12개월 과정의 전문교육 코스를 인터넷을 통해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e-Learning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다. 30명의 실제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운영에서 서비스의 내용 자체도 마음에 들지만 개인적으로 수강하려면 20만원에서 많게는 6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 결정이 망설여지는 서비스를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아파트에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소지움 전자책 도서관의 이용률은 대한민국 국민 연평균 독서량을 크게 넘어 전체 입주민의 20% 이상이 연평균 3.8권의 도서대출을 기록하여, 최근 모든 건설사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나 사용법이 어려워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비교한다면 입주민을 위한 첨단 디지털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MISOZIUM

307

30



5 층남 최초의 홈네트워크가 갖춰진 개롱신도시 신성미소지움의 달팽이 분수

자연과 첨단 IT기술의 조화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

인간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상을 추구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설을 추구해 온 대표적인 친환경 건설기업답게 맑은 숲처럼 쾌적한 '자연이 허락한 아파트' 건설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층간 소음 방지에 대한 연구 개발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아파트의 단순한 조경공간을 육생 생물과 수생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비오름이 조성된 자연 공간으로 승격시켰을 뿐 아니라, 단지내 공원에 조성된 휴게공간에서 첨단 무선 LAN을 이용해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등 첨단과 자연이 공존하는 컨버전스 아파트라는 신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조해 나아가고 있다.

IT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신성 미소지움의 새로운 컨셉은 아파트를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내 집'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신성건설이 지켜온 주택건설 이념이 가져다 준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모든 건설사에 유행처럼 보급된 홈네트워크시스템 역

시 신성 미소지움에서는 환경과 접목된다. 실내환기 효율을 극대화한 크로스윈드(Cross-Wind) 창호설계는 물론 실내의 유해가스를 감지해 자동으로 오염도를 알려 주고 환기시스템이 작동하여 입주자에게 가장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찾아 설정해 주는 등 차별화된 첨단시스템에 대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점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세계는 이미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글로벌 환경경영 시대에 돌입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 건설 기업 역시 지구환경 보존과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앞다투어 환경경영을 선포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매진하는 현실에서 국내 어느 건설사보다도 먼저 인간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한 신성건설은 1952년 창업 이래 줄곧 '인간을 소중히, 환경을 소중히'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건설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친환경 건설기업의 입지를 다져왔다.

신성건설은 앞으로도 인간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54년간 국내외에서 축적한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건설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공간을 더하는 것이라는 자연친화적 건설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초우량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30년전 한 젊은 건축학도가 선택한 신성건설, 30년이 지난 후 신성건설이 그를 선택했다!



신성건설 **윤문기** 대표이사
2005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신성건설의 윤문기 대표는 1976년 신성건설에 공채로 입사하여 현장소장, 건축부 부서장, 건축사업 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2005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윤문기 대표는 신성건설의 사훈인 신용·성실·인화 중에서 인화를 최고 덕목으로 꼽으며, 임직원의 인화가 이루어져야 상호간에 신용이 생기고, 서로 신뢰하며 화목한 조직 문화가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흔히 건설업이라 하면 이직률이 높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성건설은 10년, 15년 장기근속은 물론이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무한 후에도 모든 직급을 버리고 재입사하여 회사를 위해 백의중군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 수십명에 이르고, 외환위기 당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동료 직원의 상당수가 회사의 경영이 나아지자 다시 돌아오는 이유 중 하나가 신성건설의 사훈이자 윤문기 대표의 인생철학인 '인화'이며, 이것은 지금의 신성건설을 54년간 지켜온 지력이기도 하다.

윤문기 대표는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단 한 명의 고객, 단 한 명의 직원의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열린 경영'을 펼쳐 사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굳은 일에 숭선수범의 자세로 앞장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회사에 돈을 많이 벌여주는 경영자가 아닌 고객에게 사랑 받는 초우량 국민기업의 경영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대표이사 취임 1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윤문기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자답게 특화된 신기술·신공법 보유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가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배하는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인식하여 연구 개발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윤문기 대표가 말하는 신기술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객이 편리해야함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이 고객의 공사비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은 앞의 두 가지 항목이 충족되어 고객을 만족시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여, 자신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문기 대표의 이러한 의지는 주택사업 분야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례로 건축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건설업계 최초로 10만 여권의 전자책(e-BOOK)을 입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미소지움 전자책 도서관'을 도입하여 법정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무관하게 건설사가 평생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건설사 부담으로 제공하며 주택건설시장에 평생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였고, 자신이 직접 Task Force팀을 운영하여 완성한 'MISO Project'는 신성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미소지움(MISOZIUM)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미소지움 특유의 생활동선(Moving), 지능형 아파트(Intelligent), 안전(Safety), 최적의 개방형 구조(Opening)라는 4가지 테마를 실제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접목시킴에 있어 전국의 현장과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다니며 직원들과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주부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열의를 보이며 수 개월에 걸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소지움을 브랜드 출시 2년 만에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발돋움하게 하였다.

윤문기 대표의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노력은 고객 중심의 발빠른 변화와 혁신으로 주택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객의 성향이 바뀌면 기업은 따라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제는 변화 자체보다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21세기 기업은 고객보다 더 빠르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성건설의 윤문기 대표는 기업이 바뀌려면 경영자가 숭선수범해야 한다면서 기업 변화의 첫 번째 요건을 경영진의 자세 즉,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낮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기업의 경영자 스스로가 고객의 마음 속에 들어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의 경영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성건설 윤문기 대표의 열의에 찬 노력은 신성 미소지움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주택산업발전과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여 2005 주택건설의 날 유공자 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받아 그의 기여도가 입증되었다. **HN**